



정혜연 사진관



유난히 파란하늘이 이날따라 더욱 높아만 가는 가을 날씨였다. 아침부터 다급한 듯 빠르게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에 가을 하늘 감상은 끝이 났다. 수화기 넘어 깊은 한숨과 함께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아주머니가 근심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어제 그 곳에서 유모차를 대여했었는데, 그 유모차에 귀중품을 놓고 왔다.”는 전화였다 “현재 습득물은 들어오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하시는 아주머니를 뒤로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귀중품은 다름 아닌 DSLR 카메라였다. 지금이야 많이 보편화된 DSLR 카메라지만 이 때만해도 보급화 되지 않던 부의 상징이었다. 나에게는 일반 카메라도 없던 그토록 구경이라도 실컷 해보고 싶었던 바로 그 DSLR!

유모차 보관함을 열어 3대의 유모차를 하나하나 뒤적거렸다. ‘그 고가의 DSLR을 누가 봤어도 가만히 뒀겠어? 당연히 없겠지.’ 하면서 마지막 유모차를 뒤적거린 순간 나도 모르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광고 속에서만 보이던, 나도 한번쯤 꿈꿔봤었던 카메라가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신이시여.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나는 이미 물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재빠르게 유모차 깊숙이 카메라를 숨기고 있던 추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고는 전화를 걸었다.

“유모차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듯 전화를 끊는 아주머니의 모습은 화상통화가 아니지만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분명 유모차에 있던 DSLR 카메라를 보고도 못 본 척 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좀처럼 어떤 일에도 집중 할 수가 없었다. 내 시선은 온통 유모차 보관함에만 가 있었다. 어쩌다 걸려온 전화벨소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는 아이처럼 나를 깜짝 깜짝 놀라게 했다. 후회, 다시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시간은 더디게 흘려가고 있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시각, 나는 카메라를 꺼내 아무도 없는 화장실로 향했다. 카메라 전원도 켜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카메라 놀이에 빠져 있었다. 여러 버튼을 누르던 중 카메라에 찍혀진 사진들. 평범하고 그들만의 일상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짐작했던 아주머니, 갓 태어난 아이, 행복한 세 식구의 사진으로 가득했고 나의 죄책감은 극도로 다다르고 있었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던 갓난아이의 얼굴은 마치 바른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만 같다.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없다고 했던 카메라를 다시 있다고 연락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 마당에 독하게 마음먹고 “메모리카드를 빼버리자. 그럼 괜찮을 거야.” 내안의 탐욕은 좀처럼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제는 감쪽같이 이것이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하며 딸깍하고 메모리카드를 놀렸다. 카메라 본체 옆면으로 빠져나온 메모리카드에는 “우리 딸 사랑하기 100일 작전”이라고 적혀있었다. 그 글귀를 본 순간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더 이상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 가족의 가장 행복한

추억을 망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당연하게 전화를 걸어 그 아주머니에게 ‘우리 딸 사랑하기 100일 작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곱게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했다. 부끄럽고 추했던 내 잘못을 이렇게라도 반성하고 싶었다.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이 또 나를 유혹한다면 보는 사람이 있던, 없던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청렴을 가르쳐준 DSLR 카메라 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깨끗해져야 한다. 이제 나는 그 갓난아이만큼 천사 같은 2명의 아빠다. 나의 아이들에게 물욕을 가르쳐줘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부패(탐욕)와 청렴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타인의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지 않는가?

얼마가 지났을까, 택배아저씨의 손에 들여져 있던 조그마한 박스는 어느새 나에게로 향해 있었다. 보낸 이는 얼마동안 잊고 있던 DSLR 카메라의 아주머니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눈처럼 하얗게 수북한 백설기 떡이었다. 그 아이 100일된 떡이었구나, 순간 알 수가 있었다. 속도 모르고 나 같은 놈에게 감사의 인사로 백일 떡을 보내주신 것이다. 처음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찾아서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적어도 나에게는 그 순간 백설기 떡은 갓 출소한 이에게 주는 두부 한 모였다. 평소 떡을 좋아하지 않은 나지만 그날따라 어찌나 맛있던지 지금도 백설기 떡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아직도 DSLR 카메라가 없다. 어쩌면 그 어떤 선명한 화소의 DSLR 카메라도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 날 이후부터 내 마음 속에는 매일 매일 청렴필름을 현상하며 나만의 청렴사진관을 영업하고 있는 중이다. 